



FEB 2025

VOL. 274

▲ 학교 채플 찬양팀의 동계 MT 2월 3~4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진행되었다. 설악산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더 높여줄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팀원들의 의지가 씩씩하다. [관련 기사 10면]

# KÓKKOS2

# 2024 대학교육만족도 평충 뛰었다

## 「재학생 종합만족도」 82.5점으로 역대 최고

2024년도 우리 대학 교육에 대한 학우들의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서 82.5 점으로 전년(2023년) 대비 7.4점이 올랐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전공교육과정」으로 88점을 기록하였다. 전년도 83.4점이었는데 5.4점이 오른 것이다. 전년 대비 가장 높게 오른 항목은 환경 및 행정지원 분야의 「교육환경」으로 83.6점을 받으며 12.6점이 경충 올랐다. 이는 신임 최정권 총장이 아름다운 대학을 지향하며 강의실, 기숙사, 학생식당, 편의점 등 학우들이 머무는 모든 곳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인 「대학 이미지」도 전년 69.9점에서 2024년 77.6점으로 7.7점이 올라 「교육환경」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오른 항목이 되었다.

평가감사실(실장 임지영 교수) 은 지난 1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대학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재학생 이외에도 학부모, 졸업생, 우리 대학 졸업생을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 등 4개의 교육

수요자 그룹의 만족도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개 교육수요자 그룹 가운데 산업체 만족도는 86.3점으로 가장 높다. 다음이 학부모 83.9점, 재학생 82.5점,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룹이 졸업생으로 76.2점이었다.

산업체 만족도 내용을 보면 「직원 만족도」 88.9점, 「핵심역량달성 정도」 86.3점, 「핵심자질만족도」 83.8점으로 우리 졸업생들이 소속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품성과 자질, 그리고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학에 종사하는 한 교육학자는 “재학생의 만족도가 80점을 넘는다는 건 드문 경우로 놀랍다. 학교가 열심히 학우들을 섬겨 온 것은 물론이지만 학생들의 신앙과 선한 품성이 학교에 대한 신뢰와 감사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되었으며 재학생 850명, 학부모 201명, 졸업생 372명, 산업체 100기관이 참여하였다.

### 2024년 대학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교육과정			환경 및 행정지원		대학 이미지	종합만족도
	일립교육 (신앙)	일립교육 (교양)	전공	교육환경	행정 및 지원		
2020	70.0	75.5	83.4	72.6	75.5	67.0	<b>74.0</b>
2021	75.0	79.2	84.4	76.6	79.0	73.6	<b>77.9</b>
2022	70.5	78.4	83.0	73.4	76.8	71.3	<b>75.6</b>
2023	70.3	79.5	83.4	71.0	76.9	69.9	<b>75.1</b>
<b>2024</b>	<b>77.7</b>	<b>85.0</b>	<b>88.0</b>	<b>83.6</b>	<b>82.8</b>	<b>77.6</b>	<b>82.5</b>

## 우리 대학 교육의 질과 성과 **최상위 확인**

### 「2024 년 학부 교육 실태조사(K-NSSE)」 37 개 요인 **크게 향상**

「교육과미래연구소」(성균관대학교, 소장 배상훈 교수)가 주관하는 「2024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 결과 우리 대학은 100점 만점 척도에 69.9점을 기록, 전년도(2023년) 65.4점에 비해 4.5점이 올랐고 같은 조사에 참여한 전국 109개 대학의 평균 59.2점보다 10.2점이 나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통상 수행하는 대학평가가 주로 투입과 산출 요인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는데 비해 이 실태조사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프로그램, 학습경험이 교육의 질과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맞추어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요인별 분석은 물론 학년별 코호트 방식(Cohort Analysis)으로 성장분석 및 동료대학(Peer Universities)과의 비교 정보를 통해 우리 대학의 위치까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사 문항은 4개 영역 10개 요인 37개 세부 요인으로 구성된다. 우리 대학은 전년도(2023년)보다 모든 영역과 요인, 세부 요인에서 모두 점수가 올랐다(표 참조).

37개 요인 중 가장 우수한 요인은 「반성적 학습」(78.1점)이고 「효과적 수업전략」(76.9), 「교우관계 만족도」

(76.2)가 뒤따른다. 가장 큰 폭을 보인 요인은 9.6점 상승한 「교수 연구 프로젝트」(34.8→44.4)이고, 8.9점 오른 「국제교류 프로그램」(26.1→35)과 8점 상승한 「대학 몰입」(58.3→66.3)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또 우리 대학이 전국 109개 참여 대학에 비해 모든 영역, 모든 요인, 모든 세부 요인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는 참여 대학을 3개의 비교 집단(전국 대학, 수도권 중소형 대학, 자율개선 수도권 중소형 대학)으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전국 대학」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폭의 우위를 보인 요인은 우리 대학이 16.6점 높은 「교우와의 학습」(우리 대학 66.9/전국 대학 50.3)이며 「고(高)효과프로그램 참여」 요인의 차이는 16.4점(50.5/34.1), 「교수와의 경험」 요인은 14.5점 차이(68.0/53.5)를 보이고 있다.

최은희 학사 부총장은 “이런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학교를 신뢰하고 함께 해 준 모든 학우들,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만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 2024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조사 결과(종합)

영역	통합 요인	2023 우리대학	2024 우리대학	전국대학	수도권 중소형	자율개선 수도권 중소형
	전체 평균	65.4	<b>69.9</b>	59.2	59.0	59.0
	학습 참여	61.7	<b>65.8</b>	52.6	51.7	51.7
	학습자 심리	68.0	<b>73.0</b>	64.2	64.5	64.5
	학생 성과	66.6	<b>71.0</b>	60.9	60.8	60.9
학습 참여	학업도전	71.8	<b>74.3</b>	63.0	63.7	63.6
	교우와 학습	62.6	<b>66.9</b>	50.3	50.1	50.1
	교수와 경험	64.5	<b>68.0</b>	53.5	52.1	52.0
	대학환경	65.0	<b>69.2</b>	62.0	60.8	60.9
	고효과프로그램 참여	44.5	<b>50.5</b>	34.1	31.9	32.2

## 2024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조사 결과(세부)

2025.01.02 평가감사실

영역		세부 요인	2023 우리대학	2024 우리대학	2024 전국대학	2024 수도권 중소형	2024 자율개선 수도권 중소형
전체 평균			65.4	69.9	59.2	59.0	59.0
학습 참여	학업도전	유의미 학습	70.5	72.3	57.5	58.0	58.0
		반성적 학습	77.0	78.1	68.6	69.3	69.2
		자기주도 학습	68.0	72.6	63.0	63.7	63.6
	교우와 학습	협력 학습	73.4	75.4	60.2	58.9	58.8
		다양한 그룹과의 교류경험	51.8	58.5	40.4	41.4	41.4
	교수와 경험	교수-학생 상호작용	54.2	59.0	38.1	36.3	36.2
		효과적 수업전략	74.8	76.9	69.0	68.0	67.9
	대학환경	교우 관계 만족도	72.6	76.2	63.5	62.7	62.6
		교수 관계 만족도	67.2	72.1	62.9	61.4	61.5
		직원 관계 만족도	62.2	67.0	59.5	58.3	58.5
		지원적 대학환경	57.9	61.6	49.9	49.5	49.7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58.6	63.7	49.3	48.6	48.7
신입생 세미나		57.6	62.3	42.9	39.2	39.6	
학습공동체		56.9	60.0	49.1	46.7	46.7	
멘토/튜터 활동		45.8	52.0	38.9	37.7	37.9	
멘티/튜티 활동		46.5	51.1	37.3	34.8	35.2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42.5	50.2	30.7	27.8	28.1	
국제교류 프로그램		26.1	35.0	19.3	17.7	18.1	
교수연구 프로젝트		34.8	44.4	22.6	20.8	21.1	
산업현장 참여프로그램		38.2	44.8	25.3	22.1	22.4	
고학년 대상 활동		38.3	41.7	25.5	23.5	23.8	
학습자 심리	학업적 자기효능감	68.4	73.1	64.6	64.9	65.0	
	학업동기	67.6	72.8	63.8	64.1	64.1	
학생 성과	진로성숙도		70.3	74.5	63.8	63.3	63.3
	대학몰입		58.3	66.3	57.1	56.6	57.0
	대학 생활을 통해 얻은 학생 성과	글쓰기	61.7	67.4	54.0	54.1	54.1
		말하기	62.9	67.8	55.3	54.8	54.8
		통계분석력	62.8	66.3	56.9	56.7	56.9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사용	61.6	66.9	52.3	53.0	53.3
		전공 지식·기술	73.5	75.9	70.6	70.7	70.6
		직업 지식·기술	69.2	73.8	65.2	63.8	63.8
		비판적·분석적 사고	66.3	70.0	59.9	59.9	60.1
		현실문제 해결력	67.0	71.4	59.6	59.2	59.2
		협동 능력	71.9	74.7	66.1	66.4	66.5
		다양성 이해	70.7	74.3	66.3	66.5	66.5
		교양있는 시민의식	67.2	71.8	62.7	63.0	63.2
		가치관·윤리관 형성	66.9	72.9	63.1	63.1	63.3

## 2024 전기학위수여식 학부 70 회, 대학원 37

2월 18일(화) 오전 10시  
박사2, 석사 56, 학사 213명



▲ 이다니엘 학우 (성서)  
스룹바벨상, 에스라상 2 관왕



▲ 김병수  
(실천신학 전공)



▲ 김진태  
(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

2024 전기 학위수여식(학부 70회, 대학원 37회)이 2월 18(화) 오전 10시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거행된다. 학위수여식에 앞서 졸업 예배에서는 한규삼(총현교회 담임) 목사가 '전문가의 길로 나아가는 로드맵'(담전 4:12~16)으로 말씀을 전한다. 이철희 이사가 기도, 김은호 이사는 축도 순서를 맡았다.

학부에서는 전체 213명(성서학 57, 사회복지학 41, 영유아보육학 31, 컴퓨터소프트웨어학 29, 간호학 55명)의 학우가 학사 학위를 받는다. 총장상은 권샘(성서) 학우 등 5명이 수상하며 이다니엘(성서) 학우는 스투바벨상(BRC 4년연속참여)과 에스라상(성경 다독자)을 동시에 받는 2관왕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대학원은 김병수, 김진태 원우가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신학 9, 간호학 7, 목회학 22, 사회복지학 8, 보육학 10명이 석사학위를 받는다. 총장상은 김병수(일반대학원 신학), 이사장상 최경애(신학대학원) 원우가 수상한다.

박사 학위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다.

### 김병수(실천신학 전공)

논문: Mark E. Dever와 Timothy J. Keller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목회 : Michael J. Quicke의 전방위 리더십 모델을 중심으로

### 김진태(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

논문: 기독교 후기 청소년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불안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목표중심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 교목실장에 박태수 교수

2025 학년도 3 차 인사  
SI 융합학부장 임지영 교수



▲ 박태수 교수  
교목실장



▲ 임지영 교수  
SI 융합학부장

최정권 총장은 2025학년도 3차 인사로 교목실장에 박태수 교수를 임명하는 등 총장직속 부서와 일립대학 및 부속 교육기관이 포함된 보직 인사를 단행하였다.

총장직속 부서 인사는 성과관리실장에 권경만 기획실장을 겸임토록 하였으며 산학협력단장에 장인순 교수를 임명하였다, 신설된 SI융합학부장에는 임지영 교수가, 일립교육과 과장으로 김웅기 교수가 임명되었다. 국제교류원 부원장에는 박태복 신입 직원을 보직 발령하였다. 그 외 인사는 다음 표와 같다.

이번 인사는 다변화되어 가는 대학 환경 속에서 우리의 본질은 굳건히 고수하면서 현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와 융복합적 역량을 갖춘 밀알 인재 양성에 필수적인 재정 확충 전략 등이 반영된 인사로 풀이되고 있다.

	부서	직책	이름
총장 직속	교목실	실장	박태수
	기획팀	팀장	김병수
	대외협력팀	팀장	전영호
	혁신사업단	팀장	김병수
	평가감사팀	팀장	장성희
	성과관리실	실장	권경만
		팀장	권순범
산학협력단	단장	장인순	
	팀장	김병수	
일립대학	SI융합학부	학부장	임지영
	일립교육과	과장	김웅기
	지역사회임팩트	센터장	장인순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김형미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팀장	김현동
	국제교류원	부원장	박태복
		직원	박인혁

# 새내기 포부

2025년도 수시합격자들의 당당한 패기와 의지가 추위 속에서도 솟구친다. 4년의 배움을 통해 자신의 굳건한 꿈을 이뤄가겠다는 새내기들의 포부와 기대를 듣는다. 다음 5가지를 서면으로 물었다.

1. 대학생이 된 기쁨은?
2. 나의 장점은?
3. 재학 중 도전하고 싶은 영역?
4. 10년 후 내 모습과 인생관은?
5. 우리 대학 첫인상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가는 사람



안조이(성서학과)

2024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바람을 허락해 준 성서대에 설  
렘이 크다. 친화력이 좋고 모두를 연결하는 센터와 같은 역할이 큰 장  
점.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한 기대감, 동시에 영유아보육도 도전할 계  
획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이며 세속에  
물들지 않되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가는 사람이 되고 싶  
다. 나의 성향과 믿음을 잘 지켜 줄 이 대학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배들이  
벤치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김다희(사회복지학과)

새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나는 매사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면  
서 명랑한 것이 큰 장점이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여러 컴퓨터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겠다. 가정을 이루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회복지사로  
서 있겠다. 사람에 대한 배려와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독교 대  
학이 큰 매력, 선배들이 벤치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좋  
은 동기들과 멋진 대학 생활을 이루가고 싶다.

10년 후?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 있겠지



김다혜(영유아보육학과)

전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새 친구들과 다양한 교류로 더 성장하고  
싶다. 누구와도 잘 지내며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장  
점. 여러 활동을 통해 리더십 향상과 정교사 자격 취득, 그리고 어린이  
집 원장에 임하고 있을 것 같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이 행복을 낳는다고 생각. 기독교 대학인 것이 선택하게 된 큰 이  
유였고 4년의 배움을 거쳐 정말 크게 성장하고 싶다.

프로그램 분야의  
1인 개발자로  
우뚝 서 있을 것



김현호(시용합학부)

대학생 됨에 감사하고 좋은 동기, 선배님과 펼쳐 갈 과정이 무척 기대된  
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과 반듯한 예의가 장점이며 코딩 관련 각종 자격  
취득과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전공을 살려 프로그램 분야의 1  
인 개발자로 우뚝 서 있을 것이며 책임감을 발휘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인생관을 지향한다. 시용합학부에서 여러 과정을 배울 수 있게  
돼 지원했으며 교수님과 선배, 동기들과 멋진 대학 생활을 펼치고 싶다.

주변을 돕고  
섬기며  
봉사자의  
삶을 실천하는  
인생관



홍정인(간호학과)

원하는 전공 공부를 하게 돼 기쁘고 축제와 캠프에 대한 설렘도 크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장점. 학교의 신앙 프로그램에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  
고 해외 봉사도 적극 참여하고 싶다. 전문간호사로 해외 의료선교 봉사  
도 꾸준히 참여할 것. 주변을 돕고 섬기며 봉사자의 삶을 실천하는 인생  
관을 갖고 있다. 기독교 대학이라 지원했고 신앙 기반의 프로그램을 보  
며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대학이라는 걸 느꼈다.

## 신·편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

2월 22일(토) 밀알관 로고스홀

2025학년도 신·편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가 오는 2월 22일(토) 오후 3시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개최된다. 학부모 초청 간담회는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소개하고 학교의 복음전도자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해 가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간담회는 개회 예배와 함께 대학 안내 및 교수진 소개, 총장의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학과별 모임이 있다. 학부모들은 학과별로 전공 교수진과 만나 학과의 비전과 경쟁력, 취업률을 비롯해 대학 생활에 요구되는 각종 정보 등을 질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 신·편입생 학부모 관련 문의

▲ 기획실 : 02-950-5426 / 5436

## 학부모기도회 부활

2월 20일,  
'자녀를 신실한 일꾼으로  
간구하는 자리'

학부모기도회가 부활한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었는데 사태 종료 후에도 잠잠하던 기도회가 오는 20일(목) 모임을 통해 다시 가동하게 되었다. 학부모기도회는 지난 2019년까지 교내에서 학부모들이 연 4~6회 모임을 가져 왔다.

기도회는 재학 중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학교를 위하여, 교수들과 직원들을 위하여 간구해 왔었다. 2월 재개를 앞두고 학부모기도회 재건을 추진하는 측은 "갈수록 말씀이 사라져가는 위기의 시대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양육되도록 함께 간구하자"며 모든 학부모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한 학부모는 "하나님의 신실한 대학인 성서대학에 학부모기도회 재개는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모여 나누며 주님께 간구해 갈 때 캠퍼스에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보내왔다.

### 학부모기도회 모임

- ▲ 일시 : 2월 20일(목) 오후 6시40분 ~ 7시 40분
- ▲ 장소 : 복음관 2층 회의실
- ▲ 문의 : 한국성서대학교 교목실 02-950-5540



# ‘복음전도자로 살겠는가?’ 15%가 ‘아니오’

## 2024학년도 졸업예정자 신앙상담 결과 **적신호**

### 지난 3년 대비 모든 항목이 하락세

2024년도 4학년 졸업예정자들의 복음에 대한 확신, 교회출석 등 신앙생활 상태는 지난 3년에 비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목실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설문지, 지도교수 상담, 교목실 1:1 상담 등을 통해 졸업예정자 215명에 대한 신앙 상담을 실시하였다.

복음(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의 물음에 90%, 193명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0%, 22명이 ‘없다’라고 답하였다. 2021년, 2022년에는 94%, 2023년에는 95%가 복음에 대한 확신에 ‘예’라고 답하였었다. 학과별로는 성서가 100% ‘예’라고 답하였으며 사복 88%, 영보 91%, 컴소 85%, 간호 82%가 구원의 확신을 보여 주었다 (표 참조).

“학우는 졸업 후 복음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하였는가?”라는 질문에 85%, 183명이 ‘예’라고 답하였고 15% 32명은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이 항목은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한 복음전도자를 양성한다」는 우리 대학의 존재 이유(정체성)와도 직결된 항목인데 지난 3년 동안 매년 감소 추세(21년 91%, 22년 91%, 23년 93%, 24년 85%)를 보이고 있다.

교회 출석 여부에 대한 설문에는 81.4%가 ‘출석 한다’라

고 답하였는데 이 항목 또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영유아보육학과는 2021년 100%에서 올해 75%까지 매년 10%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재학 중 성경 통독 비율은 1독 이상이 84명(39%), 3독 이상도 28명(13%)이 나왔다. 재학 중 기도 생활의 성장을 묻는 질문은 5개 척도(매우 성장, 성장, 보통, 아님, 전혀 아님)로 조사 하였는데 ‘매우 성장, 성장’은 139명(64.4%)이 있으며 ‘아님, 전혀 아님’이라고 응답한 학우가 24명(11%) 이었다. 이 항목도 2023년 69%에서 4% 하락한 형편이다. 다행한 것은 성서, 사복, 컴소의 기도생활 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간호와 영보가 감소했으며 특히 영보는 전년(2023년 90%) 대비 37%나 하락하였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신앙훈련은 채플(41%)이었고 4대 연간 주제 중 성경(37%)이 가장 유익했다고 평가하였다. 재학 중 복음전도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39% 84명이 ‘예’라고 답하였다.

강규성 교목실장(부총장 겸임)은 졸업예정자들의 신앙 상담 결과에 대해 “앞으로 캠퍼스 내 세밀한 복음전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신앙성장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우리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 학과별 복음에 대한 확신 비교 현황

	예		아니오		2021	2022	2023	2024
성서학	60	100%	0	0%	98%	100%	100%	100%
사회복지학	36	88%	5	12%	88%	89%	92%	88%
영유아보육학	29	91%	3	9%	97%	94%	98%	91%
컴퓨터소프트웨어학	28	85%	5	15%	100%	88%	92%	85%
간호학	40	82%	9	18%	89%	96%	93%	82%
<b>TOTAL</b>	<b>193</b>	<b>90%</b>	<b>22</b>	<b>10%</b>	<b>94%</b>	<b>94%</b>	<b>95%</b>	<b>90%</b>

## 2025 학년도 학부 장학대상자 발표

전체 300 명  
총 2 억 4 천 5 백만 원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차승민 (영보 1) 학우



▲ 차승민 학우 (영보 1)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장학위원회는 22일 2025학년도 1학기 장학대상자를 선정 발표하였다. 우수성적 장학 46명과 외부기관 장학 등 전체 300명에게 2억 4천 5백만 원의 장학금(국가장학금 제외)을 지급하게 된다.

전체 최우수성적장학은 차승민(영보1)학우가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학과별 최우수성적장학은 송경원(성서3)학우 등 15명, 우수성적장학은 권하진 (사복3) 학우 등 30명이 선정되었다.

신입생 성적장학은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성적에 따라 추후 발표된다.

교내 성적장학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 차승민(영보1)

### 최우수성적장학

- |              |                          |
|--------------|--------------------------|
| △ 성서학과       | ▲송경원(3) ▲남궁이레(2) ▲황다애(1) |
| △ 사회복지학과     | ▲이서희(3) ▲강성우(2) ▲엄나연(1)  |
| △ 영유아보육학과    | ▲정지민(3) ▲추소원(2) ▲김혜린(1)  |
|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김의준(3) ▲남궁린(2) ▲송준서(1)  |
| △ 간호학과       | ▲이윤경(3) ▲손진서(2) ▲이소희(1)  |

### 우수성적장학 (2등 / 3등)

- |              |  |
|--------------|--|
| △ 성서학과       | ▲임지영(3) ▲임현정(3) ▲이효정(2) ▲이하성(2)<br>▲신편터(1) ▲이기진(1) |
| △ 사회복지학과     | ▲이향기(3) ▲권하진(3) ▲박윤미(2) ▲하예술(2)<br>▲박정현(1) ▲이아진(1) |
| △ 영유아보육학과    | ▲윤예진(3) ▲진수정(3) ▲박나윤(2) ▲정주현(2)<br>▲박소하(1) ▲송한희(1) |
|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김원형(3) ▲진은택(3) ▲이대성(2) ▲임선아(2)<br>▲오성균(1) ▲박신원(1) |
| △ 간호학과       | ▲김시은(3) ▲성희은(3) ▲하준우(2) ▲최시영(2)<br>▲박세현(1) ▲손수인(1) |

### 특별성적장학

▲ 박현우(컴소4)

## 국제교류원 부원장 박태복 씨 임용



국제교류원에 박태복 씨가 부원장으로 임용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서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주어진 달란트를 통하여 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협력과 해외 유학생들의 본교 입학, 재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한국성서선교회 제 51 차 대의원 정기총회

총회장 현희철 목사 연임



▲ 51 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끝마친 대의원들

한국성서선교회 (회장 현희철 목사) 제 51차 대의원 정기총회가 21일 중앙성서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신입 개인(10명) 및 단체 회원(5개 교회) 소개, 각 위원회별 사업 보고와 결산 및 예산, 회원교회 현황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졌고 안건 토의에서 국내 선교비 2년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2025년 임원 선출로 현희철 총회장이 연임되었으며 부회장 김종구 장로(중앙성서교회), 총무 김용호 목사(용인성서교회), 서기 민찬양 목사(한일성서교회), 회계 김윤규 장로(중앙성서교회), 은급 위원장 김정호 목사(삼일성서교회) 등 16명이 선임되었다.

2025년 주요 사업은 목사 임직식(2.25), 한국성서대학교 주일(4.27), 목회자 가족 수련회(8월), 한국성서선교회 주일 (9.7) 목회자 세미나(11월) 등 22개 사업이다. 총회에 앞서 현희철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엡 4:12)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회 소명에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흥 시키자”고 말씀하였다.

## 채플 찬양팀 동계 MT “하나님을 더 높여줄 복음의 통로자”



▲ 팀원들이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며 기쁜 시간을 만끽하고 있다.

채플 찬양팀(리더 이향기, 사복 3)의 동계 MT가 2월 3~4일까지 양양해피빌에서 열렸다. 주제는 ‘길을 만드시는 주’. 13명의 팀원은 먼저 흥겨운 레크레이션으로 여장을 풀었고 2명씩 팀을 이뤄 서로의 신앙과 삶의 내면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좁혔다. 개강 후 진행하게 될 3월 FT 계획과 팀원 조정 및 구성원 유대강화 등을 놓고 밤늦게까지 토의를 이어갔다.

김창현 목사는 저녁 예배에서 “찬양팀은 주님의 위대한 성품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특별한 사명을 갖는다”라며 소명 의식을 갖고 찬양에 열심히 임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수정(영보 4) 학우는 “찬양팀의 역할과 책임감을 깊이 느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더 높여줄 복음의 통로자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월계지역아동센터 위탁 운영 본교 산학협력단, 센터장 유아랑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단장 강규성)이 노원구청으로부터 구립 월계지역아동센터를 위탁받아 5년(2025.1~2030.1)간 위탁 운영하게 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월계 지역사회 내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 및 문화와 정서 등의 복지서비스로 건강과 심신 향상 등을 돕는다. 유아랑 센터장이 책임을 맡는다.

유아랑 센터장은 “월계지역아동센터가 아동 복지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향상시켜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양육되도록 헌신과 섬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정권 총장



## 인공지능



이번 미국 방문지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그리고 샌디에이고입니다. 집회 인도와 함께 학교의 홍보, 모금 활동까지 여러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계획된 집회는 은혜 중에 마쳤고 모금은 씨를 뿌렸으니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방문에서 뜻하지 않은 일은 AI 인공지능의 힘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웨이모를 한번 타시지요.” 그 말과 함께 말로만 들던 구글의 자율로봇 택시인 웨이모(Waymo)에 승차하게 되었습니다. 텅 빈 운전석의 핸들이 스스로 돌아가 좌회전 우회전을 하고 신호등 앞에 서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니터에는 보행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꼬리 물기를 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타기 전에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조금씩 신뢰감이 들면서 점차 기대감까지 생겼습니다. 두 번의 승차 경험에서 앞으로 운전면허를 반환해야 할 나이가 되어도 이런 자율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현재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진 차량이 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가용을 시승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SUV 자율 주행차는 운전자가 전방만 주시하면 나머지는 차가 알아서 가

는 구조입니다. 원리는 웨이모와 비슷하고 다만 운전자의 졸음 방지와 주의력의 결핍 때문에 전방 주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완전 자율로 갈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세상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만일 자율주행이 보편화 되면 굳이 차를 소유할 필요성은 사라지고 언제든지 부르면 오는 공유의 개념으로 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통해 수입 얻는 현재의 직업도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드론으로 배달되는 음식을 먹고 길가에서 사람 모양의 로봇이 거리를 청소하고 개 모양의 로봇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는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사회 변화를 앞두고 대학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설교를 하는 AI 설교자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고 로봇이 치매에 걸린 환자를 위로하며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진단하면서 그 걸 수행하는 인간 의사 사이에 둘의 경계도 모호해질 겁니다. 지금 대학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은 대학 문을 나서자마자 폐기가 되고 대학의 강의실보다 온라인 교육이 더 좋아지는 시대까지, 굳이 대학에 와야 할 이유가 없다면 현재의 대학은 어디에서 있게 될 것인가? 하루와 한 달, 또 다음 해의 살림을 염두에 두고 걸어야 할 저에게는 버거운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귀국해서 뵈겠습니다.

### 총장의 편지





박상민 교수(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박지홍(성서학과 4)

## 약한 나로 강하게

일을 하다 보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를 위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작다고 느껴질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미약한 목동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저에게 깊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다윗의 강함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예배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배를 단순히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된 이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을 약한 자라고 여기며 하고자 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작지만 강한 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길을 정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_ 시편 23편 4절

이 고백이 ‘작지만 강한 대학’ 속에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중심에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가 아기에게 느끼는 사랑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사랑은 깊고 무조건이며, 이해를 초월하는 헌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는 아기를 기다리며 작은 생명이 세상에 올 준비를 할 때부터 사랑을 쏟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계획하시는 사랑과 닮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부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기를 돌보며 보호합니다. 아기가 울고, 배고프고, 불편할 때마다 부모는 기꺼이 자신의 필요를 뒤로하고 아기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고민과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기가 성장하며 실수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변치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랑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아기가 성장하여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를 지지하시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부모가 아기에게 느끼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작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 하늘이 열리는 기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열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른 새벽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예배당에 나섰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따뜻한 이불을 뒤로하고 졸린 눈을 비비며 교회에 가는 길은 참으로 힘에 겨웠지만 예배가 끝난 후 교회 마당에서 맞이한 동이 터오는 아침 공기는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새벽의 하늘, 벅차게 차오르던 감동은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부모가 된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자녀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피곤함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 줍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보며, 믿음의 유산이 전해질 것입니다.

새해 첫 주,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은혜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주기도문,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지 청지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27

봄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뽕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보는  
너,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https://blog.naver.com/hyuntrain/223373697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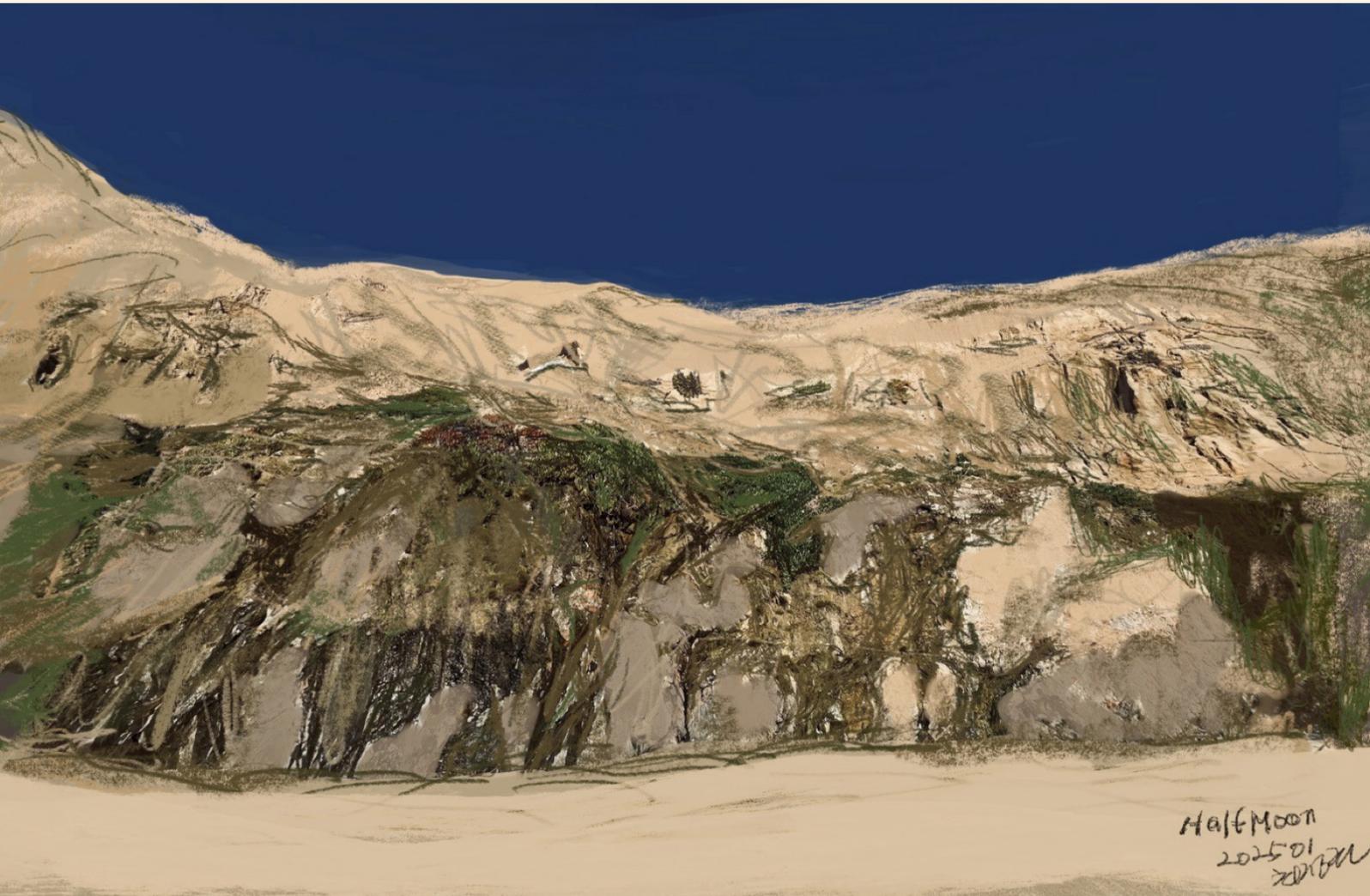
봄은 생명의 시작과 희망을 상징한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후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은 기다림에 지친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

그러나 너무 더딘 봄은 기다림을 잃게 한다. 이성부 시인은 기다림에 지친 그들에게 ‘비록 더디지만 마침내 봄은 온다’고 힘을 불어 넣어주고(〈봄〉), 신동엽 시인은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우리들 가슴 속에 움튼다’고 기대하게 하고(〈봄은〉), 정호승 시인은 ‘스스로 사랑이 되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기도 한다.(〈봄길〉)

그 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온갖 미움들 눈 녹이듯 녹여버리는 너그러운 봄, 기다림에 지친 이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는 봄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 반달 해안 최정권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53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산호세로 내려가는 길에 만난 해안의 이름은  
반달 베이(Half Moon Bay)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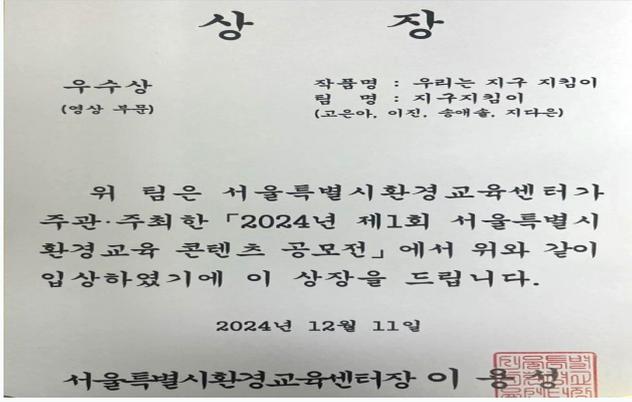
리조트와 골프장을 끼고 있는 반달 모양의 비치에서  
바쁜 일정에 쫓기는 발길을 잡은 건 바다도 바위도 아닌  
해안에서 바라본 언덕이었습니다.

언제나 해안에 도착하면  
언덕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는데  
이번에는 바다를 등에 두고  
바다가 보는 시선으로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언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다양한 색을 드러내고 있는 땅  
겨울 바다의 찬 바람에도  
푸르름을 지닌 풀들과 난 모양의 식물들  
그 식물들을 품고 있는 바위가 되지 못한 흙들의 색  
비쳐오는 햇살과 등 뒤로 들리는 바다의 소리가  
하나가 되어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림은 그 가치를 반영합니다.

서울시 환경교육 콘텐츠 우수상



대학이런지

### 「환경교육 콘텐츠 공모전」 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한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콘텐츠 공모전」에서 3세 감사사랑반이 우수상을 받았다.

유아들이 맞게 될 미래는 환경에 대한 사전 교육과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작은 실천을 통해 전등 끄기, 분리수거와 음식 및 물 낭비하지 않기 등을 기획하며 ‘우리는 지구 지킴이’ 제목의 영상물로 참여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특히 환경 보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는 지상명령과도 잇닿아 있음을 되새긴 시간이 됐다.

[감사반 고은아 교사]

어르신들이 단어 퍼즐 맞추기를 진행 중이다.



대학이런지

### 설 명절놀이

우리 복지관은 24일 어르신들을 위한 전통과 디지털을 결합한 명절놀이 프로그램을 1층 로비에서 가졌다.

행사는 어르신들이 쉽고 즐겁게 임하도록 명절 음식 맞춰보기, 키오스크를 이용한 퍼즐 맞추기와 여러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하였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정이 담긴 음식도 전했는데 놀이 시간 내내 모두의 얼굴에 훈훈한 표정이 연신 이어졌다. 한 어르신은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놀이도 체험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며 배려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서비스팀 김은지 주임]

영유아들이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대학이런지

### 전통 놀이 한마당

설 명절을 앞둔 24일 원내에서 '전통놀이 한마당'을 진행하였다. 전통 악기 연주, 고무신 던지기, 오리나 강정 만들기, 전통 놀이감 만들기, 사물놀이, 투호놀이, 사방치기, 대형 윷놀이 등을 체험하였다. 방패연 만들기에서는 방패연에 예쁜 색을 칠하고 막대 형태의 얼레에 실로 나만의 연을 완성하며 큰 보람과 기쁨을 만끽하였다.

이 밖에도 설날 음식과 새해 인사하기, 한복 입고 세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건강과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였다.

[만들레반 김효진 교사]

중·고·청 동계 연합수련회 참석자들



대학이런지

### 동계 연합수련회

19~21일까지 중, 고, 청 동계 연합수련회가 인천 영흥도에 있는 영흥 힐링센터에서 진행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딤후 6:11~12)라는 주제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세워 주의 제자가 된 삶을 다짐하는 수련회가 되었다. 저녁 집회에서는 반세호 담임목사가 주님의 비전을 힘써 분별하는 구별된 자의 삶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비영리단체 ‘Out of Boat’의 최영환 대표가 자신의 청소년 시기를 간증해 많은 울림을 전했다.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박효민 목사]

간호사가 유아의 시력을 검사하고 있다.



상계백병원  
공인

## 눈 건강교육 및 시력검사

16일, 방문 건강관리로 눈 건강교육 및 시력검사를 진행하였다. 일상에서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눈의 피로를 풀어줄 간단한 눈 운동까지도 따라 해보았다. 이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눈 건강을 소중히 지키겠다는 약속도 다짐하였다.

간호사 선생님의 안내로 시력검사도 참여했다. 간호사 선생님은 “아이들의 눈 건강이 모두 좋았고 설명까지 잘 듣고 차분히 따라주어 마칠 수 있었다.”라며 건강한 성장을 기원했다. 교사들은 눈 건강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 긍정적인 자리였다고 감사사를 나타냈다. [푸른반 이진아 교사]

센터 내에 조성한 겨울철 하얀 나라 전경



노원유아종합지원센터

## 눈꽃 마을

관내 영유아에게 겨울을 즐기고 체험할 겨울철 하얀 나라 ‘눈꽃’으로 놀이공간을 운영하였다. 놀이실 천장에 하얀 공과 벽돌을 비치했고 흰색 매트로 ‘눈꽃 마을’ 분위기도 연출하였다. 체험은 눈사람 만들기, 이글루 집짓기, 따뜻한 벽난로와 얼음낚시 등 주로 겨울 놀이를 즐겼다.

체험실을 방문한 영유아와 부모들은 겨울왕국을 연상시키는 포토존과 벽난로 쉼터 영역에서 사진도 촬영하고 분식 놀이로 붕어빵과 고구마 장수가 되어 음식을 팔 수 있는 상상 놀이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박지혜 보육전문요원]

유아들이 키즈카페에서 놀이를 즐기고 있다.



상계5동어린이집

## 중평 서울형 키즈카페

17일, 만2세 초록풀잎반은 ‘중평 서울형 키즈카페’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중평어린이공원의 낙후된 시설이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완공된 곳이다. 키즈카페는 안전한 환경을 자랑하였고 영아들은 자동차, 소꿉놀이, 미끄럼틀, 보드게임 등을 즐기며 경험하였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경험해 본 영아들은 다음에도 방문하고 싶은 의지를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가까운 곳이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된 키즈카페를 통해 교육적인 놀이 환경 시간을 늘려갈 계획이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유아들이 한복을 입고 명절 놀이를 체험하고 있다.



늘사랑어린이집

## 설날 행사

24일, 설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날 전통 놀이감도 만들고 세배 방법과 설날 이야기로 행사를 기다렸다. 당일 원아들은 멋진 한복을 입고 등원하였다. 만두 빚기, 흥겨운 전통 놀이와 세배, 새해 인사 등으로 웃음꽃이 만발했다. 음식 만들기와 민속놀이와 고유의 전통문화까지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경로당과 관리사무소, 교회 등 고마운 이웃을 찾아 세배하고 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설 행사를 통해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과 성취감을 안겨준 긍정적인 시간이 됐다. [늘사랑반 최수정 교사]

참여자들이 고마운 마음을 찰흙 속에 담아뒀다.



월계우리통합상담소

## 미술치료 집단 프로그램

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 대상으로 찰흙과 물감 등의 미술 도구를 이용한 모아 미술치료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모자가 서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찰흙으로 만들어 담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말로 표현 못한 마음을 찰흙으로 만들어 전하면서 다른 수단으로 대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찰흙의 촉감을 통해 가정폭력의 긴장도 잠시 떨쳐내는 편안함도 맛보았고 각자의 등에 포스트잇으로 전하고 싶은 문장을 적어 붙이며 폭신한 풍선을 꺼안는 스킨십도 가지면서 유대감을 높여 준 시간이 됐다.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최나연]

# 「성서대학동기운동」 기부현황

www.bible.ac.kr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4년 12월 21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KB노원종합금융센터	2000만원(운영)	전주서부중앙교회(노재석 목사)	110만원(운영)
남가주사랑의교회	725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강우정, 강진(법인이사장)	587만원(운영)	교수부(교수상조회)	100만원(장학)
미사목민교회(이정목 목사)	151만원(운영)	수봉산교회(김법선 목사)	100만원(운영)
최정권(총장)	110만원(운영)		

## 약정자 명단

<b>동문 및 가족</b>	<b>재학생 및 가족</b>	<b>종암교회</b>	<b>5구좌</b>	<b>행진교회</b>
1구좌	1구좌	1구좌	10구좌	(주)이레E&C이레디자이너
곽원규 류하나 박경수 서지혜	이성령	윤은정		/전주서부중앙교회
엄미자 이민우 이병주 정익봉	<b>교직원 및 가족</b>	<b>일 반</b>	30구좌	한민제일교회
최승진 황형록	3구좌	1구좌		
2구좌	<b>중앙성서교회</b>	문혜영 박영미 서민석 조동빈		
송만호 송인성 정성민	3구좌	조은혜		
3구좌	오근수	5구좌		
김윤정	5구좌	석지현		
5구좌	김옥자	<b>단체 및 기관</b>		
남희경	10구좌	1구좌		
10구좌	현희철	무진인터내셔널		

## 기부자 명단

<b>동문 및 가족</b>					
1만원	강나경 강순성 강애슬 강옥경 강은혜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광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용 권슬기 권유철 권정민 권지연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김가영 김도훈 김동완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열 김민정 김민을 김병렬 김석근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은경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혜 김용환 김일준 김재현 김정희 김중환 김진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하나 김현정 김혜영 김희석 나선영 남궁화 남범수 남성휘 노정현 노하나 노만 류요한 류하나 류희정 문성영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운복 박채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영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유미 서지혜 서진희 서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진규 송바울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신혜영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안은숙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찬미 오재형 옹이름 우현아 원유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윤영연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식 이권호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선정 이수진 이신재 이아람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진 이진경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해렬 이해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해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상일 임은성 임은진 임은희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영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하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민을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차나리 채유신 채종원 천난희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인호 최준은 최진석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은석 하수현 하진 한경순 한상장 한해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신 황승호 황예린 황형록 강해든이 설에스터 황보혜영	이우진 이유미 이유진 이의선 이재은 이중임 이총희 이현우 이혜영 임수경 임은령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은경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완 조소정 조은별 최수지 최인경 최혜진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허춘선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등대교회	이혜정 임동화 장영정 전계화 조유라 지중배	이재은 이중임 이총희 이현우 이혜영 임수경 임은령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은경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완 조소정 조은별 최수지 최인경 최혜진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허춘선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등대교회	이재은 이중임 이총희 이현우 이혜영 임수경 임은령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은경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완 조소정 조은별 최수지 최인경 최혜진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허춘선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등대교회
1만원	고성호 광지윤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가람 김규리 김동원 김미나 김민정 김복녀 김성훈 김승희 김연정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재한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김현진 노민지 류종렬 박문홍 박민주 박상수 박성주 박재송 박정연 박주영 박혜숙 소경숙 송만호 송민규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오현주 유미영 유익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상영 이영애 이예원	3만원	고은영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세현 김윤정 김재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윤문순 이길순 이다윤 이성은 이인나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차주영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홀은교회	2만원	김신애 관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중현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영우 박묘서 박연지 박주양 서광필 양승원 유성준 이은영 이정은 이지민 장경순 전광선 전귀순 정현아 지수빈 최미영 하유민 요시다고조 하늘사랑
1만원	이예람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4만5천원	황미숙
2만원	고성호 광지윤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가람 김규리 김동원 김미나 김민정 김복녀 김성훈 김승희 김연정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재한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김현진 노민지 류종렬 박문홍 박민주 박상수 박성주 박재송 박정연 박주영 박혜숙 소경숙 송만호 송민규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오현주 유미영 유익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상영 이영애 이예원	5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준오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인순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우나 이정균 이지은 인성은 최경환 최송희 가학교회 생명의빛교회 상서말앞선교회 월계지역아동센터	5만원	권오길 박신희 손미연 안중현 이재현 정주화
1만5천원	이예람	6만원	양연선 정동주	6만원	송의택
2만원	고성호 광지윤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가람 김규리 김동원 김미나 김민정 김복녀 김성훈 김승희 김연정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재한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김현진 노민지 류종렬 박문홍 박민주 박상수 박성주 박재송 박정연 박주영 박혜숙 소경숙 송만호 송민규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오현주 유미영 유익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상영 이영애 이예원	10만원	김동관 김선옥 김창교 김중숙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정원	10만원	김승례
1만5천원	이예람	11만원	유선미	1만5천원	김희
2만원	고성호 광지윤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가람 김규리 김동원 김미나 김민정 김복녀 김성훈 김승희 김연정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재한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김현진 노민지 류종렬 박문홍 박민주 박상수 박성주 박재송 박정연 박주영 박혜숙 소경숙 송만호 송민규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오현주 유미영 유익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상영 이영애 이예원	22만원	성낙표	1만7천원	박성범 임수아
10만원	이례장학	100만원	이례장학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창호 박은주 안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정은상 조철남 최난영 한상민 한정숙 하희수
		<b>재학생 및 가족</b>		2만5천원	김덕원 김봉재 이소연 정자용
		1만원	권명희 김민서 김혜미 나예린 류기환 박윤경 박한을 송지민 안성민 양은성 이다원 이동기 이대숙 이성령 이연선 이정윤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유수연 이소연 추연진

기부자 명단

3만5천원 반우형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 김현진	7만원 이정선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박기숙
4만5천원 문지에 민경은 배민정 전영호	<b>밀알교회</b>	<b>일동성서교회</b>	박명숙 박수명 박재균 서병준
5만원 구광면 김성호 김원빈 박상민	1만원 서효정	1만원 심미영 유현석	서성원 안은숙 이일신 이태일
양단아 장정순	<b>삼일성서교회</b>	2만원 김의남 박문수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최국열
5만5천원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다운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3만원 왕순희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윤혜진	<b>서문교회</b>	5만원 표길홍	행복한교회
7만5천원 김미숙 김병수 김현동 신지수	1만원 강선에 윤인호	<b>장자교회</b>	3만원 장문석
유미나 이상일 장성희	1만5천원 정찬수	4만원 권정숙	3만5천원 박은영
8만5천원 권순범	20만원 서문교회	5만원 장자교회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9만5천원 임환석	<b>성서대학교교회</b>	<b>주향교회</b>	10만원 서미혜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성경 김소희	2천원 박용숙	1만원 유병우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4천원 탁경미	2만원 정우진	30만원 박순정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태용	9천원 오경모 정갑숙 황성모	3만원 주향교회	725만3천원 남가주사랑교회
배진형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는 이대영	<b>중앙성서교회</b>	
원영희 이상아 이소정 이슬기	이대환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b>단체 및 기관</b>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영태	1만8천원 강유진 고경숙 고나경 고미숙	최영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최은희 홍소윤 김정원(신)	권은정 권정화 김다혜 김덕현	2만원 신영욱 강영애 신한성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김정원(영)	김동석 김문정 김봉춘 김상은	이준구 안춘자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12만원 김용기	김성은 김성진B 김성철 김애숙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주님순교회/행복한교회
12만5천원 신금주 최사랑 최옥열	김유미 김일선B 김주혜 김지윤	5만원 김옥자 이경식 한금례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13만5천원 최지은	김진철 김향순 김현미 김희자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주)에이스와식산업
14만5천원 김덕현	김희현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도새기방
15만원 강규성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박은선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이한영	송형기 안봉숙 유부자 윤도진	12만원 황인돈 김순자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15만5천원 한진호	윤재필 이경미 이관영 이무현	15만원 이혜선	/의정부좋은나루교회
16만2천원 김중완	이소정 이정숙 이정자 이종욱	<b>퇴계원제일교회</b>	/주식회사 이수전기
17만5천원 권경만	장근문 장기영 장진희 장홍림	1만원 유재란	4만원 플랜팅스즈
20만원 김승욱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조정선 최인숙 한충현 허진순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5만원 다드림교회
22만5천원 정휘진	2만7천원 선종인	<b>평화교회</b>	/본도시락 중계점
25만원 임지영	3만6천원 김민자 김배열 김성진C 김인영	1만원 안종민	/사랑샘교회
35만원 최선희	김민자 박 선 박선하 양태환	<b>풍암교회</b>	/예일에드컬/천성교회
37만5천원 이강동	용정자 이승미 이영희 임용택	1만원 윤은정	/한일성서교회/행진교회
87만7천원 강일석	정나영 정선희 황사은	<b>함평대동교회</b>	10만원 (주)바다나라
110만원 최정권	4만5천원 김근열 박은경 유형창 최광희	1만원 김희경	/주)이레트&C0이레디자인
587만5천원 강우정 강 진	5만4천원 송재철 이숙영 조병하 황서린	<b>화도도림교회</b>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7만2천원 이경신	1만원 권순실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길용희 김영현	5만원 화도도림교회	/두암산업(주)/만나교회
<b>부설기관</b>	박세건 박은유 이은실 전명진	<b>효성교회</b>	/상록교회/성복중앙교회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김효진	최대만 최순남 한진호	1만원 진경순 진효숙	/의정부제일교회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호한나	18만원 권태완 노봉환	<b>일 반</b>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2만원 진양희 허성보	<b>성서선교회</b>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평안교회(신병수)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변송이	2만원 금춘성서교회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20만원 (주)소원기건
인미희 장나혜	3만원 푸른동산교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30만원 (주)주안/한민제일교회
4만원 윤종찬	5만원 동두천성서서성김교회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50만원 동서환경(주)
5만원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박영희 박지성 박혜숙 서민석	100만원 교수부/수봉산교회
7만원 김선화	<b>세빛교회</b>	송수용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110만원 전주서부중앙교회
10만원 권정아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5만원 세빛교회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혜연	151만2천원 미사목민교회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b>수원교회</b>	유화실 윤준영 이관현 이민우	2000만원 KB노원종합금융센터
20만원 김신덕	1만원 강동형 김일섭 정우광 홍성호	이사랑 이성영 이우윤 이원주	
35만원 오동준	<b>어린이양교회</b>	이유진 임숙자 조동빈 조목장	
<b>권선제일교회</b>	1만원 김정희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승	
1만원 이상규	2만원 한지화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5만원 권선제일교회	3만원 임윤창 어린이양교회	한춘경 황영수	
<b>동광교회</b>		2만원 강명옥 권소영 길미금 길옥석	
			<b>소계(20241221~20250120)</b>
			69,008,886
			<b>누계(20240301~20250120)</b>
			856,208,676

<b>한국성서대학교 1월 『발전후원금』</b>			
<b>일반(일시불) 후원자 (4,495,000원)</b>			
이성화 목사(동문)	140만원	중앙교육(일반)	100만원
다음 총학생회(재학생)	764만원	신윤심(재학생)	50만원
최문정(재학생)	30만원	남현수(동문)	25만원
선경안(동문)	25만원	황미숙(재학생)	3만1천원
<b>약정 후원자 (합계 48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5,760,000원)</b>			
30구좌 (주)주안(일반) / 5구좌 박상민(교직원), 오진곤(재학생) / 2구좌 박정연(재학생)			
1구좌 이지민(교직원) 남궁화 노정현 서지희 이선정 이혜란(모두 재학생)			
<b>일시납 누계(2024.3.1.~2025. 1.22일까지) 277,850,477원</b>		<b>약정자 누계(2024.3.1.~2025. 1.22. 일까지) 34,320,000원</b>	